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12. 12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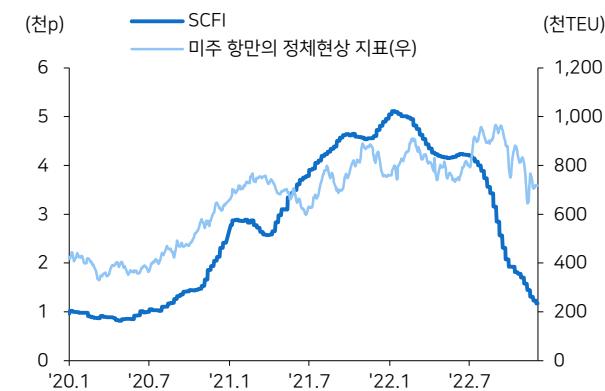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386.0p(+1.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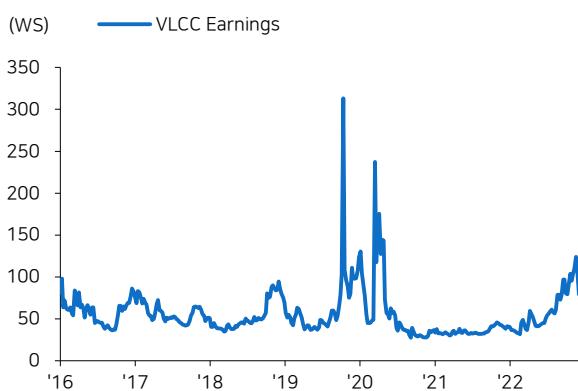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1,138.1p(-33.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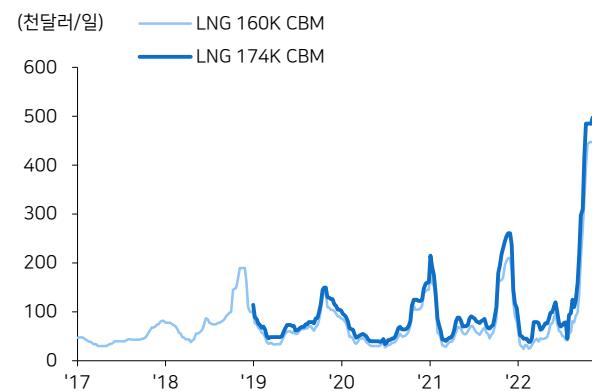


VLCC Spot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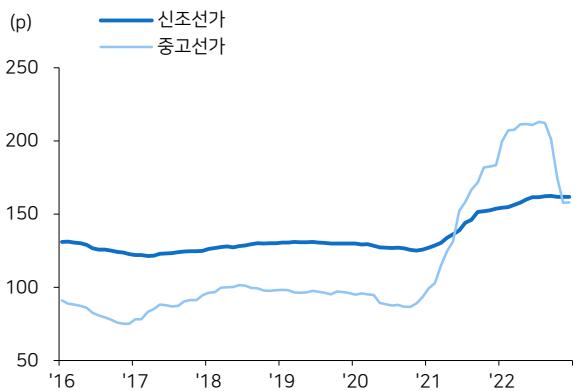
82.2p(+2.6p WoW)



LNG Spot 운임

201.3p(-73.8p WoW)
280.0p(-35.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6p(-0.1p WoW)
157.9p(+0.2p WoW)

항공시장 지표

249.9p(-0.6p DoD)
96.5p(+0.3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Qatargas seeks North Field compression facilities in \$4 billion tender

Qatargas가 40억달러규모 North Field Production Sustainability (NFPS) EPCI 입찰을 시작했다고 보도됨. 이번 EPCI4는 최근 Saipem-COEC가 수주한 45억달러규모 EPCI2 업무와 비슷하다고 언급됨. 입찰 대상인 두 개의 해상압축플랫폼은 CP8S, CP4N으로 구분됨. 참가 의향을 내비친 업체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aipem, McDermott, Larsen&Toubro 등이 있다고 언급됨. Qatargas는 2023년 1분기 중 입찰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Upstream)

ExxonMobil boosts energy transition investment and ignores critics with share buy-back extension

바이든 대통령의 뜻과 달리 미국 ExxonMobil은 2024년까지 시행할 자사주매입을 30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확대했고, 2022년에만 150억달러규모를 매입할 것으로 보도됨. 대통령은 주주환원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고객의 손실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ExxonMobil은 2027년 매출을 2019년대비 두 배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2022년 150억달러 자사주매입과, 150억달러 배당을 발표함. CAPEX는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 총 250억달러를 투입할 것으로 계획함. (Upstream)

PTTEP's \$30 billion spending spree

태국 PTTEP는 석유 및 가스 생산 증대에 2027년까지 약 300억달러규모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알려짐. 5개년 투자를 통해 2023년 470,000BOEPD에서 2026년 531,000BOEPD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짐. (Upstream)

Muhibbah scoops EPCIC prize for Petronas' latest offshore project

말레이시아 Petronas Carigali가 8년전 발견된 Gansar 가스전 개발에 나섰다고 보도됨. 최근 Muhibbah Engineering 컨소시엄과 6,800만달러규모 EPCIC계약을 확정 지은 바 있음. 2028년까지 가스 1,461억큐빅피트와 콘덴세이트 410만배럴을 생산할 계획임. (Upstream)

탱커시장 지각판이 움직인다

2023년은 탱커시장은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도됨. EU수입제재로 인해 러시아 원유가 원거리 수송되고 유럽국가들이 중동, 미걸프, 서아프리카 등에서 수입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Clarksons는 2023년까지 원유 해상 물동량의 평균 수송거리는 5%, 2024년은 6% 증가할 것으로 알려짐. 유조선 선사 Ardmore는 탱커운임이 3배 상승 전망, Maersk Tankers는 톤마일이 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알려짐. PC선사 Torm은 2월 석유제품 수입 금지 조치 시행 시 톤마일이 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선박뉴스)

한화그룹,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 '임박'

한화그룹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도됨. 12월 내로는 본계약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고 언급됨. 인수가 완료되면, 그간 공적 자금으로 연명해온 대우조선이 본격적으로 재도약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이코노미스트)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히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